



## 여름의 분위기: 화이트 세라믹 소재의 DEFY SKYLINE 스키텔론

낮이 길어지고 수성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지금, 제니스가 최초로 화이트 세라믹 소재와 함께 블루 스키텔론 무브먼트, 그리고 완벽한 여름 감성이 담긴 다이얼을 갖춘 DEFY Skyline 모델을 출시하며 뜨거운 계절을 기념합니다.

1969년 출시된 최초의 제니스 DEFY 손목시계 모델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DEFY Skyline은 DEFY 라인의 시그니처인 대담한 건축적 라인과 변함없는 견고함으로 과거와 현재를 자연스럽게 연결합니다. 새로운 버전의 DEFY Skyline Skeleton은 대칭적인 오픈 무브먼트와 다이얼에 DEFY Skyline 컬렉션 최초로 화이트 세라믹 소재의 외관을 결합해 완성되었습니다.

1969년 출시된 최초의 제니스 DEFY 손목시계 모델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DEFY Skyline은 라인의 시그니처인 대담한 건축적 라인과 변함없는 견고함으로 과거와 현재를 자연스럽게 연결합니다. 새로운 버전의 DEFY Skyline Skeleton은 체계적인 오픈 무브먼트와 다이얼에 DEFY Skyline 컬렉션 최초로 화이트 세라믹 소재의 외관을 결합해 완성되었습니다. 표면에 새틴 브러싱 및 폴리싱 처리가 번갈아 적용되었으며, 스크래치에 강한 화이트 세라믹 케이스와 12각형 베젤은 언제 어디서나 어울리는 화려한 버전의 DEFY 실루엣을 완성합니다. 10ATM(100m) 방수 기능을 갖춘 화이트 세라믹 소재의 DEFY Skyline Skeleton과 함께라면, 모든 여름 액티비티를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DEFY Skyline Skeleton은 화이트 세라믹 소재와 강렬한 블루 컬러의 스키텔론 무브먼트, 그리고 오픈 다이얼을 선보입니다. 끊임없이 반짝이며 다양한 톤의 블루 컬러를 드러내는 오픈 다이얼은 1969년부터 DEFY 라인에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제니스의 유명한 사각 별 모양 모티브 형태로 제작되었습니다. 다이얼 아래에서 움직이는 엘 프리메로 3620 SK 무브먼트는 마찬가지로 제니스의 시그니처로 손꼽히는 블루 톤으로 완성되어 밤하늘을 보는 듯한 풍경을 연출합니다. DEFY Skyline에는 또한 전통적인 다이얼 대신 세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끊임없는 0.1초 러닝 인디케이터가 탑재되었습니다. 이는 10초에 한 바퀴를 돌며 다가오는 여름을 단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즐겨야 한다는 유쾌한 리마인더가 되어줍니다.

실용성을 중심으로 고안된 DEFY Skyline Skeleton White Ceramic은 케이스의 윤곽을 따라 이어지며, 마찬가지로 브러싱 및 폴리싱 마감 기법이 함께 적용된 일체형 화이트 세라믹 브레이슬릿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라믹 소재에 맞춘 화이트 패턴 러버 스트랩이 추가로 제공되며, 이는 케이스의 간편하고 기발한 스트랩 교체 메커니즘을 활용해 별도의 도구 없이 쉽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 세라믹 소재의 DEFY Skyline Skeleton 은 5Hz 이스케이프먼트로 직접 구동되는 0.1 초 인디케이터가 특징인 엘 프리메로 3620 SK 오토매틱 고주파 스켈레톤 칼리버로부터 동력을 제공합니다. 이는 약 55 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며, 스톱 세컨드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정확한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 세라믹 소재의 DEFY Skyline Skeleton 은 전 세계 제니스 오프라인 및 온라인 부티크와 공식 매장에서 소량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 제니스: 꿈을 향한 도전.

제니스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추구하며 이를 이뤄내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1865년 설립 이후 제니스는 최초의 수직 통합형 스위스 시계 매뉴팩처로 자리 잡았으며, 제니스 시계는 영국해협 횡단 비행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루이 블레리오(Louis Blériot)부터 성층권 자유낙하 기록을 세운 펠릭스 바움가트너(Felix Baumgartner)에 이르기까지 큰 꿈을 꾸며 불가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온 특별한 인물들과 함께해왔습니다. 제니스는 또한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영감을 불어넣는 드림허스(DREAMHERS) 플랫폼을 마련해 선구적인 여성들의 업적을 기념하고 그들에게 주목합니다.

혁신의 별을 따라 전진하는 제니스는 모든 시계에 인하우스 방식으로 자체 개발 및 제작한 무브먼트를 사용합니다. 제니스는 1969년 세계 최초의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칼리버인 엘프리메로를 출시했으며, 계속해서 0.1 초까지 측정 가능한 Chronomaster 컬렉션과 0.01 초의 정밀성을 갖춘 DEFY 컬렉션을 통해 정밀한 고진동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시간 측정 역량을 드러냈습니다. 혁신은 곧 책임을 의미합니다. 제니스 HORIZ-ON 이니셔티브는 포용성과 다양성, 지속 가능성, 직원의 복리 후생이라는 세 가지 헌신을 약속합니다. 제니스는 1865년부터 지금까지 새로운 차원을 향한 열정적인 도전과 함께 스위스 워치메이킹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나만의 꿈을 향해 손을 뻗을 시간입니다.

## DEFY SKYLINE WHITE CERAMIC SKELETON

레퍼런스: 49.9301.3620/79.1001

**핵심 사항:** 엘 프리메로 3핸드 시계. 고진동 인디케이터: 6시 방향에 위치한 0.1초 서브 다이얼. 실리콘 이스케이프 휠 및 레버. 스크류-인 크라운. 교체 가능한 스트랩 시스템.

**무브먼트:** 엘 프리메로 3620, 오토매틱

**진동 수:** 시간당 36,000회(5 Hz)

**파워 리저브:** 약 55시간

**기능:** 중앙에 위치한 아워 및 미닛 핸즈. 6시 방향에 위치한 0.1초 카운터.

**마감:** 새틴 마감 처리된 스페셜 로터

**가격:** 16,900 스위스 프랑

**소재:** 화이트 세라믹

**방수:** 10ATM

**케이스:** 41mm

**다이얼:** 블루 톤 오픈워크 다이얼

**아워 마커:** 로듐 도금, 각면 처리 및 슈퍼 루미노바 SLN C1 코팅

**핸즈:** 로듐 도금, 각면 처리 및 슈퍼 루미노바 SLN C1 코팅

**브레이슬릿 & 버클:** 화이트 세라믹 브레이슬릿 및 폴딩 클래스프. 별들이 수 놓인 하늘 패턴이 장식된 블랙 화이트 러버 스트랩과 폴딩 클래스프 추가 제공.

